

제 13강 : (체험)성경의 맥을 잡아라

- 문봉주 대사

(토) 2004년 6월 5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III. 출애굽/광야시대

-from Egypt (through Wilderness) to Canaan
(salvation from Egypt) 광야를 반드시 통과시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나라)

-Egypt: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먹을 것/마실 것 등이 있고, 인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곳임.
(NY/Paris/Tokyo같은 곳)

-광야: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곳
·예수님 믿은 후,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심.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 왜냐하면
우리 안에 씻어내야 할 많은 것들을 씻어내기 위함.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
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

·애굽(고통): 내 죄로 인한 고난 vs. 출애굽 후 광야(고통):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사
랑,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임. 이는 고통의 성격이 너무나 다른 것임.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
에 이끌림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과
정임. 그러므로 예수 믿은 후의 고난은 축복의 시작임.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않고, 끊임없이 불평하면, 납작 엎드리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면, 엎드리기 전까지 고난을 끊이지 않으심.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의 의미를 알아야 함. 내가 빨리 깨어질 때 끝나는 것임. “이것(내가 깨어지는 것)
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
드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 -계속 불평하면 고난의 터널을 더 길게 하심(엎드릴
때 까지)

=====
출애굽/ 시내산 훈련/ 가데스 정탐/ 광야40년
=====

1. 출애굽

가. 배경

1) 부르짖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대로, 7년 풍년/ 7년 기근으로 인하여, 헤브론땅에서 70명의 야곱 가족이, 요셉총리의 가족자격으로 애굽 땅에 와서, 고센땅을 받아, 바로 왕의 가축을 키움.

-(출1/8)'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오늘날 애굽의 역사책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음. Egypt는 pride가 강해서 외세에 점령당한 것은 기록안함. 요셉이 총리된 시기 (BC13C-14C) 약 150년간 애굽의 역사가 생략되었음.

-중앙아시아: Hyksos족의 침입: 철병거등 문명이 발달되었고, 급속한 속도로 지중해를 따라서 애굽을 점령함. 요셉은 Hyksos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의 바로 왕의 총리였음.

·원래, 애굽은 “함 족속(흑인)”인데, 중앙아시아의 Hyksos족(셈족)이 들어와서 지배하였던 것을 몰아내고, 다시 “함 족속”이 찾아서 지배하게 된 때임.

-신분급변: 총리가족> 노예의 하류계급으로 전락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뀔 때, 우리를 죄,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야 함. 노예신분에서 벽돌 만드는데 재료도 안주고 계속 억압하므로, 고통가운데서 부르짖음.; 노예신분이 아니었다면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안했을 것임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주제임.

·고통가운데, 원망/낙심/절망하지말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고하라 죄/고통/상처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들으심.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심. (렘29/12)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됨.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음. 혼자 고민/명상/생각하지말고,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들으심.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임.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시고, 약속을 주신 백성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들으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신약/구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으면/ 그 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심.

2) 지도자 모세

-40년/40년/40년

·40년: 히브리족속, 바로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공주의 양자로 채택됨. 애굽의 모든 고급문물 습득 (좋은 것을 누리는 기간). 동족을 죽이는데, 애국심으로 살인 (친어머니가 유모로 있으면서, 히브리사상을 알려줌) 정의감이 지나치면 살인도 하는 것임 Justice without Love (사랑 없는) vs. Love without Justice (자식에 대한 사랑)= 공의 없는 사랑은 자식 망침.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 바로 궁중의 모든 것(특권)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

·40년: 광야생활, 기다리고 계시다가, 미디안 족속인, 장인 이드로(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에게 인도하심. 이제부터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들과 고통 받는 것을 자원함.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사람을 죽이는 정의감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변함.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호렙산(시내산), 모세가 40년간 미리 광야생활에서 전문가 되도록 준비시킨 기간임- 200만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신가!!

·40년: 지도자생활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님.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않았음. “네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신발: 세상 지위/명예/재산/각종 핑계...이 신 벗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 신 벗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심.

-[내가 누구 관대]: 이제 살인자인데, 누가 나를 지도자로 여기겠고 “who am I?”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아니냐 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이것이 VIP (very important person)임. 이제부터 능력과 leadership을 부여 받게 되는 것임. 내가 생각할 것 아무것도 없다, 복음만 이야기하라고 하심. (내가 네게 준 말씀만 전하라!!)

-지팡이>뱀으로, 손의 문동병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였지만, 신약에서, 스테판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세는 말과 지혜가 능통한자 였더라” 하는 것을 보아...사실은 말 잘하는 삶이었으나 변명-그러나 하나님은 대변인으로 아론을 세우심.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음.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10대 재앙을 내리심.

-출애굽기는 성도의 신앙생활(과정)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성경의 모든 역사서를 총괄하는 장임.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광야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않고 동행하셨고, 우리는 광야에서조차,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벗었던 적이 없었음.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

나. 10대 재앙

*Passover (유월절)(留越절) : 하나님이 이 재앙을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우리 몸에 베어있던 온갖 육의 에너지 더러운 것을 빼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 신은 다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껌질을 벗겨내시느라고...

1)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

-Hopi신 (풍요의 신) 나일강은 항상 풍요한곳. 물이 있고, 인간의 조그만 노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서, 인본주의 발달.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심. 술사도 이를 행하였음. (이적은 마귀들도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적을 따라가면 안됨. 나일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심.

2) 개구리재앙

-Hecht:多産의 신. 꿈속에서 개구리(파충류) 꾸는 것은 대개 사탄을 의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심. 히브리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 보게만 만드심. 우리는 선택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심.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리면, 이러한 재앙이 있게된다는 것을 보여주심.

3) 이 (송아지에 붙은 이)
-사람들에게 확 뿌렸더니...

4) 파리 (바알세불-파리 때 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바리새인들이 비난. 유대 시대에는, 불신앙의 왕들은 자녀가 아팠을 때,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삶을 보냄.

5) 은역 (송아지) 짐승의 악질 (전염병)-그들이 섬기는 송아지는 신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존재임을 보이심

6) 독종 (사람의 전염병)
-블레셋 종족: 사무엘 초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있었음. 블레셋이 모시던 신이 쓰러지니까 (함께) 독종을 같이 넣어서...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

위의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기 전에는, 우상으로 섬겼음. 우리가 세상에서 따르는 것들(보이는 것)은 알고 나면 재앙임. (배척해야 함)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

7) 우박: 내가 노력해서 얻은 농산물, 우박으로 쓸려버리니 아무것도 남지않음.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

8) 메뚜기

9) 흑암
-태양신-태양을 며칠간 가려버리심. 애굽: 태양과 꼬브라(뱀)의 나라

10)장자의 죽음(Passover)
-유월절: 사망의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장자가 죽어지는데, 문설주에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지나갔음.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구원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머리 내밀면 죽게 됨- 믿음이란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끼어 들면 안됨.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바벨탑(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하심.

*출애굽 12장- 10대 재앙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 (복음임)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지키고 나아가도록 주신것이 율법=말씀임.

다. 이스라엘백성의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 광야로 불러내시고...홍해를 가르심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홍해를 가르심. 죄, 사망, 권세에서 구원 받아 나왔는데, 바로 앞에, 엄청난 장애물 (죽음)이 있음. 죄, 사망, 권세로부터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나라로 향함. 죽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하나님나라와 세상나라는 서로 반대이며 원수이기 때문에...)

-음부에서 건져낸 사람 (물세례)

·baptism(물속으로 푹, 죽어야 할 사람을 건져내는 것)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남. 하늘의 영광과 존귀는 땅에서는 핏박과 조롱거리가 됨. 땅에서 누리는 쾌락/명예/지위/재산은 하늘나라에서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됨.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에 내려오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함. (예: 하늘권세를 모두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40년 동안의 모든 것 포기하고 애굽을 떠난 모세) 세상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 받으려면 죽음을 통과하여야 함. 하나님의 땅(가나안)으로 가려면 죽음(홍해)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건져냄(물세례)- 육에 속해 있던 백성의 군대는 물속에 빠져죽고, 하나님께로 옮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음부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

-광야로 인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 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임.

<<광야에서 살아남는 7가지 비밀>> (전부 예수 십자가임)-홍해건넌 후 시내산 훈련까지

1) 마라의 쓴 물- 엄청난 기적체험

-모세의 중보기도/하나님께서 밤중 내내/동풍을 불게 해서...홍해도하.

·동풍: 일반적으로는 심판, 저주의 말임. 물을 마르게 하는 바람임.

·서풍: 지중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비를 불러오는 바람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러나 엄청난 기적체험과 은사의 효력은 3일 밖에 안감.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아님.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기적임. 홍해/미디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효시임. 홍해 건넌 후 사흘 길을 갔으나, 물이 없었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고 (Why: 엄청난 기적을 보았으니까...) 지도자(모세)에게 원망함.

-쓴 물 (마시지 못하는 물) = 고통 (물은 물인데, 내 갈증을 해결 못하는 물)

·불평/비난: 지도자의 어려움/모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향하여 외드림 (He cried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끝없이 부르짖음. 후에는 하나님, 이 백성 내가 잉태해서, 내가 낳았습니까?라고 까지 함. 200만이 살아가는 방법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 때문이었음. 하나님은 소수결이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2백만을 살리심.)

-나뭇가지 던져라 (예수님의 십자가) > 단물로 변함 (생명수, 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알려주심. 홍해의 기적을 보았으나 절대로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 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더러운 것을 씻어 내야함. 예수님 믿고 나니 쓴 물(고난)이더라... 불평하면 계속 끝이 없음. 광야에서 절대

로 빼내지 않으심. Why: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려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흠 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Elim(오아시스)로 인도

·이것이 “할렐루야”임.

a) 처음부터 Elim으로 인도했으면 몰랐을 것을, 엄청난 쓴 물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무릎 꿇을 수 있음.

b) 쓴 물 뒤에는, 단물이 있다는 것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주는 message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어둠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임. 고난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음. 엄청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임. 쓴 물 뒤에 Elim이라는 oasis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一喜一悲) 할 것이 아님. 절대로 내게 오는 고난은 끝이 있음. 언젠가 꺾임. 시간의 법칙이 있는 것임. -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2) 출애굽 후

-출애굽 후 45일이 지난 후 식량이 떨어짐. -광야에서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한달 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갔을 텐데...

-[만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엎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200만의 불신앙을 덮어버리시고... 이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그 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그 분이 동행하심을 믿을 때...어떤 방법으로든 내 생명 지켜주심.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 (엡1/3)'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마음의 평화(평안)/병고침(치료)/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source가 되는 것임. 신령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력(에너지)> 창조(형체)가 일어남. -육신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심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하루치(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하는데, 일 년치 그 이상을 구함.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하루치임. 영원히 주리지 않을 양식도 하루치임. 그날 들어오면 그날 없어짐. 그러므로 매일매일 묵상해야 함. 매일 먹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오지않으므로, 되는 일이 없음. 말씀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면,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남. (생명의 창조) 자꾸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남. 사랑의 대상에게, 모든 능력을 부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심.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전달해 주시려는 것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음. 예수님께서서도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심.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전해주는, 성령님이 계신 것이 중요함. 만나를 날마다 먹고(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날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을 공급하실 뿐아니라 육의 양식도 공급(창조)해 주시는 것임.

3) 반석의 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생수

·반석 (예수님)= 십자가사건

·예수님을 쳐라, 반석을 칠 때 (예수님이 고통 받으실 때)…생수가 쏟아짐.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은 내 몸을 치라고 하심.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니, 그곳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숨어져 있었음.

4) 아말렉의 침입

목마르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 왔음. 생명의 직접적 위협.

a) 여호수아로 전쟁에 임하게 함

b) 모세의 중보기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려고…) 아론/홀 (hur) 이 두 팔을 받쳐줌-즉 합심기도 했더니, 여호와와 군대장관이 싸워주심. [합심기도의 능력]

·생명의 위협 앞에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임하여야 함. 영적전쟁에 승리하려면, 기도하면서 싸워야 함.

·직장 다니면서, 할일 다하면서(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라. 나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님.

5)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

·말씀을 붙들 때, 광야에서 살아남음.

6) 성막

-심판을 면하게 하기위해, 은혜로 주신것임. 엄청난 은혜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 성소 (양의 피) 와 지성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7)성막을 다 완성하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 것이 출애굽의 결론임.

*출애굽기 전반부: 불신앙/ 패역/ 원망함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지을 때는, 철저히 순종하였음.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막을 다 짓고 나니,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 하셨음. (낮:구름기둥, 밤: 불기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기둥 따라서 움직이니, 광야생활에서 승리하게 됨. 우리의 광야인생 길에서 붙잡고 따라갈 것은 성령뿐 (구름기둥)임.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갈수가 없음.